

김제 스마트 팜 입주 청년 농부들의 한 서린 절규

누수 피해 등 호소… “재발방지책 마련을”

김제 스마트 팜에 입주한 청년 농부 12명이 폭우로 인한 비 새는 문제 등 각종 하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제에 소재한 스마트 팜 청년농 12명은 21일 오전 11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첨단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팜 임대농장이 지난 2021년 11월 문을 연 뒤 천정에서 누수가 반복되는 등 70여 차례나 해결을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로 자신들의 생계가 무너졌으며, 운영 주체인 김제시와 공사 시행을 맡은 한 농어촌공사, 전북자치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의 공식 사과와 이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문제점은 천장 누수로 인해 정성껏 키운 작물인 토마토, 딸기, 허브, 상추 등이 손해를 입어 스마트 팜 건설을 맡은 회사와 김제시 등에 70여 차례 보수요청에도 땀질 처방 등으로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액기 문체와 관련해선 자동 급수 양액기가 기계적 결함으로 자주 멈춰서서 수동으로 시스템을 조작해야 했고, 작물 돌볼 시간보다 고장난 설비 점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스크린 모터 고장으로 여름철



김제에 소재한 스마트 팜 청년농 12명은 21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공식 사과 등을 촉구했다.

“70여 차례 개선 요구에도 개선되지 않아” 사과 촉구 관계기관 “9월 말까지 근본적 해결책 제시하겠다”

에 햇볕에 작물이 타버리기도 했고, 스크린은 설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식되는 등 작물보호는 커녕 작물 무덤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천정이 폭염에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온실 내부가 50도에 달하는 찜통이 되어 작물들이 고온에 시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이 제대로 설계대로 지어진 지 의문을 가지고 김제시에 문의했으나 김제시는 설계대로 제대로 지어졌다고 주장한 바, 눈으로 보기에도 실제 설계 도면과 천정의 각도가 확연히 달라 보이므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입주 청년 농부들의 피해 방

지를 위한 구체적인 협약 체결도 요구했다.

끝으로, 청년 농부들은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워 자신들의 주어진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기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김제시의 소중한 자원이 스마트 팜이 잘 관리돼 청년 농부들이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에 대해 임대 통과 입주자를 관리하는 김제시 미래농업과 스마트팜 관계지는 △9월 9일까지 하자 누수 보수공사 완료 △9월 30일까지 스크린 보완 공사 완료 △스마트 팜 청년 농부들의 현장 확인 후 준공 검사 실시 △보수공사 완료 후 피해 보상 대책 논의 할 예정이나 청년 농부들이 빠른 보상 요구 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로 청년 농부들의 심적 고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팜 혁신밸리를 총괄·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인력개발 스마트 팜 팀 관계지는 청년창업 농부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제시,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슬기롭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도가 확인돼 달라 보이므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속했다.

위탁 시행사인 농어촌공사 스마트 팜 사업부 담당자는 “준공 이후 현실에 맞서 싸워 자신들의 주어진 권리를 되찾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기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김제시의 소중한 자원이 스마트 팜이 잘 관리돼 청년 농부들이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런 사태를 지켜본 한 도민은 “2018년 개설 후 부터 196명이 창업 교육을 수료하고, 144명이 전북에 스마트 팜 농부로 정착해 73%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투명한 철저한 관리로 농도 전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만호 기자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 진행

민주 정동영 의원 등 공동주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국회의원 정동영·국회의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회의원 최형두 의원 공동 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으로 21일 오전 7시 국회 의원회관 제5 간담회의실에서 ‘AI·모빌리티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이 진행됐다.



최보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박두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지석 한국항공우주 기술원장,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원장, 채정석 현대자동차 상무, 이준환 삼성전자 마스터, 이석진 SKT 팀장, 백준호 퓨리오스AI 대표, 김정욱 답엑스 부사장, 박윤하 우경정보기술 대표가 참석했다.

정동영 의원은 “‘알리버드’라는 표현처럼 아젠드라 움직이는 가짜 최고와 저리에 계산 고수를 덕분에 대한민국 AI·모빌리티의 미래가 보인다. 좋은 발제와 토론의 시간을 통해 뜻깊은 배움이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건네며, “프랑스가 1년 만에 AI 강국이 된 것처럼 프랑스의 전략 정책을 참고하여 대한민국의 AI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소버린 AI라는 용어가 주는 폐쇄성과 복잡성을 지적,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바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학교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듣는다

진형석 도의회 교육위원장, 근영중 학교운영위원회와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진형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2)은 20일 오후 근영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 학교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요 논의 사항 이외에 △교육정책의 기초 변화 △방학 중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 필요성 △덕진구와 완산구 지역간 체험학습 프로그램 편차 현상 △학생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창의 필요성 △전문가와의 상담 등에 대해서도 격의 없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진형석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급격한 학령인구의 감소를 지적하며 지속적인 입장에서 교육정책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필요성을 역설 하였고,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의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서로 소통하는 회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형석 의원은 교육위원장의 역할활동 일환으로 이루어진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소통의 자리는 일회성으로 머무르지 않고, 간담회의 대상 범위도 학부모 등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함께 만드는 행복 연결’ 21일 전북특별자치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인복지’ 희망 선포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문승우 도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인북지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혜택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플랫폼이다.

“전북에 있는 새만금, 참 불쌍하다”

이춘석 의원 “도민께 사과… 잃어버린 8개월 보상해야”
국토위 전체회의서 새만금 SOC 재검토 결과 ‘적합’ 관련
국토부 장관, “전례 없다” 시인… “보상 차질없이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이 “새만금이 전북이 아니라 영남이나 수도권에 있었어도 35년간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전북 출신으로서 새만금에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또 한 번 분노했다.

21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은 최근 새만금 SOC사업 재검토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강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박상우 장관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전면 재검토를 결정했다. 당시, 기존예산 6,628억 원 대비 78% 삭감된 1,479억 원만 반영돼 전북 정치권과 도민들이 보복성 예산삭감이라며 크게 분노한 바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사전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고 재조



이춘석 의원이 국토위에서 새만금 SOC사업 재검토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당시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서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 지체된 시간을 보상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사한 사례가 있느냐”라는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실상 전례가 없음을 시인했다. 이처럼 전례 없이 진행된 재검토 결과, 사업추진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난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이미 검증한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 즉, 애초에 문제없는 사업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면서 불필요한 연구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당시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에서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 지체된 시간을 보상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아울러 “전북도민께 상처 드린 것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박상우 장관은 사과나 구체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의원은 현장질의에 이어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정부의 재검토로 사업이 지연된 데 따른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조기 준공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호 기자

김동구 도의원, 군산 임피 지방도 확포장공사 주민 의견수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최근 군산시 대야면·임피면 구간 지방도 711호선 확·포장 공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 의정 활동을 펼쳤다.



현장에는 김동구 도의원과 지역 주민을 비롯해 공사를 맡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군산시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시행사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주민 의견과 요청 사항을 청취 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시 읍내리 일원 상습 침수 구역의 배수시설 개선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은 ‘임피면 읍내리 일원

민주 박희승 의원,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읍임순창)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험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약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만1,461건으로 전년 4만4,295건 대비 61.3%가 급증했다.

박희승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내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소상공인이 무너진 골목상권도 무너진다. 벼랑 끝 소상공인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우리 이웃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